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0년 7월 1호

◆ 번역 기사

1. 남해구(南海区),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 모색
南海区探索海洋经济高质量发展新路
2. 광둥성, 해양생태 보호·복원을 위해 20억 위안 지원
广东省拨款近20亿支持海洋生态保护修复
3.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촉진을 위해 해양경제 다자협력 모델 모색
探索海洋经济多边合作模式 加快推进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建设
4. 옌타이(烟台) 창다오(长岛), 전국 최초의 해양유형 국가공원 건설 계획
烟台长岛：年底完成创建全国首个海洋类国家公园前期工作

◆ 기타 동향

5. 10개 기업 협력으로 '칭다오시 해양바이오산업 연맹' 설립
10家企业合作组建“青岛市海洋生物产业联盟”
<http://www.hellosea.net/News/2/76731.html>
6. 산둥성 해양국 일련의 성급 해양의식교육 시범기지 건설
山东海洋局打造一批省级海洋意识教育示范基地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7-07/76880.html>
7. 선전(深圳) 파평신구(大鹏新区)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자원집적구 구축
深圳大鹏新区打造全球海洋中心城市资源承载区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7-08/76920.html>
8. 하이난성(海南省), 3.257억 위안의 국가해양생태보호복원자금 획득
海南获得国家海洋生态保护修复资金3.257亿元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7-08/76910.html?gslkbw=s0bp03>
9. 광둥(广东)-광시(广西)-하이난(海南) 공동 범 집행 구역 설립
粤桂琼设立共同执法水域 强化海上联合执法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7-01/76694.html>
10. 자연자원부, 해상수색구조 예보 서비스 분야의 첫 번째 업계표준 발표
自然资源部首部海上搜救预报服务领域行标发布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7-10/76987.html>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 +86-21-6090-0395)

남해구(南海区),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 모색

- 자연자원부 산하의 남해국(南海局)에 따르면, 2019년 남해구의 해양경제 발전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해양경제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음
 - 주요 해양산업은 안정 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구역의 해양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남해구 해양생산총액은 2조 44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27% 증가했으며, 남해구 지역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1%에 달했음
- 2019년 남해구 주요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은 8,39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61% 증가했음. 해양 어업, 해양화학공업, 해양교통운수업 및 해양관광업은 남해구의 경쟁력 우위 산업으로서 주요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에서 각각 12.95%, 10.05%, 11.66%, 49.94%를 차지했음
 - 2019년 광둥성 해양생산총액은 21,059억 위안으로 9.03% 증가했음. 광시좡족자치구 해양생산총액은 1,66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35% 증가했음. 하이난성 해양생산총액은 1,71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음
 - 2019년 남해구 연해관광업의 발전추세가 돋보이며, 해양관광업 부가가치액은 4,18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75% 증가했음
 - 2019년 남해구의 해양의약생물제품업 부가가치액은 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33% 증가했으며, 빠른 발전추세가 보여주었음
 - 또한, 최근 들어 광둥, 광시와 하이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계획을 연이어 제정했음. 2019년 남해구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업의 부가가치액은 23억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7.98% 증가했음
- 2019년 2월에 중앙정부가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 발전계획 강요」를 발표한 이후 웨강아오 구역의 해양경제 협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2019년 7월에 발표된 「광둥성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 3년 행동계획(2018~2020)」에서 6대 해양산업을 중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2019년 8월에 발표된 「선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에서 해양대학교, 국가심해과학탐사센터 및 국제해양개발은행의 설립 등 실무적인 조치를 내놓아, 남해구 해양경제 건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음
 - 웨강아오대만구 건설과 전면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시정부는 「주장강(珠江)-시장강(西江) 경제벨트(광시) 건설 3년 행동계획」을 내놓았음. 이와 함께는 광시정부는 「해양경제 발전 촉진, 해양강구(海洋强区)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현대 해양산업 체계 구축, 육·해 경제 협동발전, 해양강구 건설 촉진 등 발전목표를 제시했음
 - 또한, 2019년 6월 하이난성 정부가 발표한 「중국(하이난)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홍콩-마카오 요트 자유항 실시방안」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하이난-홍콩-마카오 요트 자유항행 실시를 통해 하이난을 ‘국제요트관광소비 명소’로 건설한다는 방침임

- 다음 단계에서 남해국은 5개 측면에서 남해구의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첫째, 자연자원 관리와 해양경제 발전 간의 융합을 계속 추진함. 남해구의 해양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양자원 보호·이용을 위한 모니터링과 해양경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해양경제와 자연자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고 남해구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
 - 둘째,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짐. 해양경제 정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급 차원에서의 해양생산총액에 대한 채산을 전면적으로 전개함. 또한, 해양경제발전정책, 국가의 지역 전략 및 관련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도록 함. 이와 동시에 해양산업협회와 상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협회가 지역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에 있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셋째, 해양전략 신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혁신적인 해양전략적 신흥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략적 신흥산업의 정책과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실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대 해양산업 체계의 구축을 촉진함
 - 넷째, 남해구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체제를 보완함. 해양경제 혁신발전 과정에서의 보급 가능한 성공적 경험을 쌓이며, 해양중소기업이 학교, 과학연구기관과의 해양경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다섯째, 해양경제의 대외개방과 협력을 추진함. 해양산업의 배치 구도를 최적화시키고 구역 간의 현대 해양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해양관련 기업의 해외생산,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도록 함. 웨강아오대만구의 교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양산업의 대외협력을 추진함. 이와 더불어 해외항만 거점에 의존해서 산업원구(园区) 공동 건설 및 우호 도시 협업 등 여러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수립하도록 함

(출처 : 观沧海, 2020. 7. 2.)

https://mp.weixin.qq.com/s/qjO_d-MtIkmt7xzg-RGDbw

광둥성, 해양생태 보호·복원을 위한 20억 위안 지원

- 최근 들어 광둥성 재정청은 해양생태문명 건설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
 - 2018년~2020년 기간에 광둥성 재정청은 총 19.55억 위원을 투입하여 광둥성의 해양자원관리와 해양경제 발전을 지원해 왔음. 이를 통해 해양생태 보호·복원 사업의 심층적 전개를 추진하면서 광둥성의 전면적 해양강성 건설을 위한 든든한 자금보장을 제공해 주었음
- 한편으로, 정확하게 시책하고 해안선의 생태복원을 지원했음. 해안선의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연안 해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해양환경 오염방제를 제대로 추진함
 - 첫째, 해양관리의 중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안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 2021년 기간에 광둥성 재정청은 매년 2억 위안의 전문자금을 마련함. 이를 통해 자연해안선을 엄격히 보호하고 파괴된 해안선을 복원시키며, 바다매립 활동이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함
 - 둘째, 중앙정부가 추진한 ‘남홍북류(南红北柳, 남방지역에서 홍수림, 북방지역에서 위성류를 종식함)사업의 요구를 수행하여 해안선에 대한 분류별 보호를 강화하고 홍수림 생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대대적으로 지원함
 - 셋째, 중점 해안선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성, 시, 현의 3급 해양환경 관측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 2021년 기간에 광둥성 재정청은 매년 5,000만 위안을 마련함. 수질, 바다로 유입되는 육지오염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함으로써 연안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하고, 광둥성 해안선 생태복원을 위해 정확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함
- 다른 한편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블루 해만(蓝色海湾)’ 종합정돈 사업을 지지함
 - 5억 8,368만 위안의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터우시(汕头)와 산웨이시(汕尾)의 ‘블루 해만’ 종합정돈 산업을 지원함
 - 중앙정부의 해만 종합정돈 추진산업에 관한 요구를 즉시 전달하여 산터우시와 산웨이시의 ‘블루 해만’ 건설에 대한 관리를 지도하여 제정자금의 효과적 이용을 확보함
 - 이와 동시에 광둥성의 아름다운 해만 건설을 지지함. 「광둥성 아름다운 해만 계획(2019~2035)」의 실시를 추진하고, 광저우(广州), 산터우, 장먼(江门) 등 연해 지역에서 아름다운 해만 건설 및 해양종합시범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 2021년 기간에 광둥성 재정청은 매년 3.5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함.
 - 광둥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아름다운 해만’ 건설을 추진한 지역이며, 산터우시의 청아오완(青澳湾), 후이저우(惠州)의 카오저우양(考洲洋) 및 마오밍(茂名)의 수이동완(水东湾)의 아름다운 해만 건설 사업을 통해 국가의 ‘블루 해만’ 사업을 위한 본보기를 보여줌

(출처 : 南方日报, 2020. 7. 6.)

<http://www.hellosea.net/News/10/2020-07-07/76892.html>

훈춘 해양경제시범구 건설 촉진을 위해 해양경제 다자협력 모델 모색

-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자연자원부는 14개 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설립했는데, 올해 4월에 또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설립을 동의했음
 - 다른 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 비하면 훈춘시는 특정한 지역 우위 조건에 의존해서 해양경제의 혁신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해양경제의 다자협력 체제를 모색할 수 있음
 -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는 ‘빙상 실크로드’ 건설, 동북아 해양운명 공동체 구축, 지린(吉林)과 동북진흥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훈춘을 중심으로 두만강을 기지로 삼아 북극항로에 향하여 갈 수 있음. 이를 통해 ‘빙상 실크로드’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고 향후의 북극 관련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북극 사무 참여를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동북아 해양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동북아와 두만강 구역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여 서로 간의 장점을 단점으로 보완하면서 해양경제에 대한 공동 논의, 공동 건설 및 공동 번영을 실현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중국 지린성과 동북지역의 산업구조는 점점 해양산업, 에너지산업, 장비제조산업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전환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이 지린성과 동북지역으로 집적시키고 지린성과 동북지역의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 훈춘시는 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책, 인프라 및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음
 - 정책 장점을 보면, 훈춘시는 동북진흥, 변경경제협력구, 종합보세구, 호시무역구(互市贸易区)¹⁾ 등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300여개 항의 구체적 지원정책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바탕에서 시범구 건설은 훈춘시의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인프라 시설을 보면, 빈해2호(滨海2号) 교통운수회랑 건설은 비교적 빠른 진전을 이루었으며, 훈춘-마하린노 철도가 몇 년 동안 운영 중단된 후 다시 정상화 운영이 시작했음. 또한, 주변 국가 항만에 의존해서 대내적으로 닝보 등 중국 연해항만과의 연계가 강화됐으며, 대외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항만과 연계할 수 있고, 또한 동북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통할 수 있음
 - 해양산업의 발전을 보면, 훈춘의 해양산업은 이미 일정의 규모를 갖추고 있음. 연변은 훈춘을 선두지역으로 삼아, 외부에서 러시아 극동해역, 북한 동부해역과 연계하여, 내부에서 허룽(和龙), 룡징(龙井), 투먼 및 연길 등 지역과 한 구역으로 연결함. 국가 간 해양산업체인을 구축하고 해양산업의 집적발전을 추진하며, 내외 연통되는 국가 간 해양산업발전벨트를 형성하도록 함
 - 현재 훈춘의 주요 해양산업은 해양어업(수산물 무역과 가공), 해양교통운수업(해운업) 및 연해관광업(국제관광)이며, 가공, 무역, 물류, 창고저장과 포장 등을 포함한 완전한 산업체인은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

1) 호시무역구(互市贸易区): 외국과의 물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특정 구역

- 향후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건설은 거시적 차원에서 해양경제의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임
 - 두만강, 동북아, 북극이사회 등 협력 체제 및 다른 다자와 양자의 협력 체제를 충분히 이용하여 항로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공유를 촉진함
 - 해양자원과 항로 공동개발에 있어, 각국 전략과 정책이 연계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 공동 시장을 조성하도록 함. 역내 국가의 해양산업 우위 조건을 발휘하여 해운서비스센터, 해양산업센터 및 물류무역센터를 육성하고, 역내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함
- 산업 측면에서 보면, 해양어업, 해양관광업, 해양물류 및 해양석유·가스와 광산 등 분야에서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와 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음
 - 해양어업 협력에 있어, 훈춘과 인접한 러시아와 북한의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국가들과의 어업자원 협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훈춘 수산물 교역 플랫폼 및 중국 동북아(훈춘) 해산물 대시장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한층 발전된 심해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수산물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해양관광 협력에 있어, 두만강 지역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또한 두만강 지역은 ‘중국-러시아-북한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해양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다렌-부산-니가타-블라디보스토크-훈춘, 자로비노-청진 및 환일본해 등 크루즈 관광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 시장을 확장하도록 함
 - 해양에너지산업 협력에 있어, 일본해, 오호츠크 해와 북극해는 풍부한 석유·가스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국은 해양 석유·가스 탐사, 채굴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에너지산업의 관련 중간단계(middlestream)와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정유 화학 공업 기술 및 석유 화학제품의 제조 수준을 향상시킴
 - 해양장비제조 협력에 있어, 지린의 지리적 우위조건 및 장비제조업의 산업집적 효과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 등 국가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장비제조업의 전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 또한, 훈춘시의 수산물 콜드체인 저장운송 능력을 높이고, 상업, 물류와 정보가 일체화된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콜드체인의 관련 시설과 체계를 개선하고 중국 훈춘 콜드체인 물류의 규모화, 전문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함. 이와 동시에 해상물류 자원을 통합하고 일련의 선진 관리수준, 큰 잠재력을 지닌 국제화 해상물류수송기업을 육성하며, 해상물류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함

(출처 : 吉林日报, 2020. 7. 6.)

<https://wap.eastmoney.com/a/202007061544474541.html>

옌타이(烟台) 창다오(长岛), 전국 최초의 해양유형 국가공원 건설 계획

- 지난 7월 9일, 옌타이시 창다오(长岛) 생태문명종합시범구 관리위원회 손화권(孙华军) 부주임은 창다오 생태문명종합시범구 개혁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음
 - 창다오 해양생태문명종합시범구는 2018년 6월 19일에 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것임. 이는 산둥성 정부가 한 현(县)을 단위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라는 이념을 실천하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새로운 모색임
 - 손화권 부주임은 창다오 해양생태문명종합시범구 건설에 관한 7개 중점 개혁업무를 지정했고, 고표준과 고품질의 건설을 위한 유력한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밝혔음
- 전국 최초의 해양유형 국가공원 건설, 올해까지 모든 전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
 - 2018년 산둥성 정부의 요구에 따라 창다오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양유형 국가공원 건설 사업을 개시했음. 이를 위해 국가임초국(国家林草局)의 조사계획설계원과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지도팀을 구성했음
 - 현재까지 「산둥성 창다오 종합 과학탐사 보고」, 「산둥 창다오 자연보호지 평가보고」 등의 초안편성이 완료되었고, 올해까지 모든 전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 대중 서비스 플랫폼 구축, ‘라스트 킬로미터(Last Kilometer, 最後一公里)’ 개통
 - 창다오의 섬들은 분산되어 현지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승선하여 왕복을 해야만 함. 이 ‘라스트 킬로미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상사(商事) 관련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처리를 실행해왔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섬에서 나가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새로운 대중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창다오 보호와 발전을 위한 표준 체계 마련
 - 창다오 종합시범구 건설 과정에서 창다오 특유한 경험을 쌓고, 전국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창다오 표준’, ‘창다오 본보기’를 보여줌
 - 관련 기관의 지지를 통해 전국 해양생태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 표준화 시범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화 시범지 건설
 - 표준화 시범구 건설과 결합하여, 올해 창다오는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9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의 기본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음. 올해 4월, 창다오는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화 종합 시범지로 지정되며, 관련 실시방안의 편성도 완료했음

■ 5개 도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 한 브랜드’의 문화 브랜드 조성

- 창다오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도서마다 자기의 특색을 지니고 있고 두터운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도서문화와 도서관광 간의 심층적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5개 도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 한 브랜드’ 조성 사업을 전개할 것임. 현재 문화전시관, 테마광장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 녹색 GDP 추계 작업 추진, 전국 해양생태 가치 추계를 위한 모색

- 2019년 11월, 창다오 종합시범구는 전국 ‘녹수청산은 바로 금산은산’ 이념 실천을 위한 혁신실천지대로 지정되어, 창다오의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음
- 창다오의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성과를 계량화시키기 위해, 창다오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양생태 가치 추계에 관한 연구를 개시했음. 또한, 중국 국내 유명한 환경과학기관들과 협력을 맺어, 녹색 GDP의 추계 업무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출처 : 胶东在线, 2020. 7. 10.)

http://ocean.china.com.cn/2020-07/10/content_76257587.htm